

臺灣通識韓語教材發展之建議： 臺灣出版韓語教材分析與學習者需求 分析

梁允禎*

東吳大學

摘要

隨著臺灣韓語學習者人數的增加，對韓語教材的關注亦隨之提升。然而，能夠反映在地學習者需求的教材開發研究仍顯不足。本研究透過分析臺灣出版之韓語教材327冊，並以508名修讀大學通識韓語課程之學生為對象進行問卷調查與深度訪談，探討教材供給結構與學習者需求之對應情形。研究結果顯示，共同或機構編著教材占整體之51.7%，比例最高，而整合型技能教材亦為出版量最多之類型（45.6%）。學習者普遍重視口說（40.1%）與聽力（35.9%），但認為文法（22.7%）與寫作（22.5%）最具學習難度，且對韓國文化（40.8%）與觀光（34.3%）表現出高度興趣。然而，就教材供給面向而言，文化與觀光類教材之比例，以及數位媒體資源之整合設計仍相對有限，顯示學習者需求與教材編制之間存在結構性落差。基於上述結果，本文提出未來韓語教材開發之具體方向。

關鍵詞：韓語教材、教材開發、臺灣韓語學習者、學習需求

* 東吳大學語言教學中心助理教授

Developing General Korean Textbooks in Taiwan – An Analysis of Published Textbooks and Learner Needs

Yun-Jeong Yang*

Soochow University

Abstract

As the number of Korean language learners in Taiwan has increased, interest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has also grown. However, research on textbook development that reflects the needs of local learners remains limited. This study examines the correspondence between textbook supply structures and learner needs by analyzing 327 Korean language textbooks published in Taiwan and by conducting 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ith 508 students enrolled in general education Korean courses at universities. The results show that jointly or institutionally authored textbooks account for a high proportion of the total (51.7%), and that integrated skills textbooks are the most frequently published type (45.6%). While learners place greater importance on speaking (40.1%) and listening (35.9%), they perceive grammar (22.7%) and writing (22.5%) as the most difficult areas, and show strong interest in Korean culture (40.8%) and tourism (34.3%).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textbook supply, the proportion of culture and tourism-related textbooks and the integration of digital media resources remain limited, revealing a structural mismatch between learner needs and textbook desig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directions for future Korean language textbook development.

* Assistant Professor, Language Teaching Center, Soochow University

Keywords: Korean language textbooks, textbook development, Taiwanese Korean language learners, needs analysis

대만 교양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제언 - 대만 내 출판 교재 분석 및 학습자 요구 분석을 중심으로

양윤정*

동오대학교

초록

대만의 한국어 학습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교재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지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재 개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 연구는 대만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327권을 분석하고, 교양 한국어 수강생 5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교재 공급 구조와 학습자 요구의 대응 양상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공동·기관 저작 교재가 전체의 5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능 통합형 교재가 45.6%로 가장 많이 출판된 유형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말하기(40.1%)와 듣기(35.9%)를 중시하는 반면, 문법(22.7%)과 쓰기(22.5%)를 가장 어렵게 인식하였고, 한국 문화(40.8%)와 관광(34.3%)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교재 공급 측면에서는 문화·관광 교재의 비중과 디지털 매체 연계 요소의 반영 수준이 제한적으로 나타나 학습자 요구와 교재 구성 간의 구조적 불일치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재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한국어 교재, 교재 개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 학습 요구

* 동오대학교 언어교육센터 조교수

1. 들어가기

현대 사회의 글로벌화로 외국어 능력은 개인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문화·경제적 영향력 확대로 대만 내 한국어 학습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을 방문한 대만인은 방한 외국인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語言訓練測驗中心(LTTC) 자료에서는 2024년 대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는 총 11,533명으로 전년 대비 약 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는 대만 사회 전반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만 시중에 유통되는 한국어 교재는 집필 주체와 개발 목적의 다양성으로 인해 구성의 일관성, 학습 단계 간 연계성, 내용 조직의 체계성 측면에서 편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일부 교재는 교육 이론에 기반한 설계와 검증 과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현지 학습자의 실제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보고되고 있다(박병선, 2018:7, 15, 22).

이에 본 연구는 대만 대학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와 현행 교재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교재 분석과 학습자 요구 조사를 병행하는 이중 연구 설계를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만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327권을 분석하여 교수·학습 내용의 공급 구조를 파악하고, 대만 소재 6개 대학 교양 한국어 수강생 5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학습자 요구의 수요 구조를 분석하였다. 두 자료를 교차 대조함으로써 교재 공급 구조가 학습자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공급-수요 간 불일치 지점을 도출하여 향후 대만 학습자 특성에 적합한 교양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고찰

2.1. 대만의 한국어 교육과 교재 개발 역사

대만에서 한국어 교육은 1956년 국립정치대학 동방어문학부에 한국어조(韓語組)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고, 1963년 문화대학에 한국어조가 추가 개설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국립정치대학과 문화대학의 한국어조는 각각 2000년과 1994년에 독립된 학과로 전환되며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2008년 남부에 위치한 국립가오슝대학 동아시아학과 한국어조가 설립되어 북부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자리 잡게 되었다(박병선, 2019:114; 왕청동, 2015:134; 증천부, 2000:195; 진경지, 2012:4).

대만 내 한국어 교재 개발은 교육 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천해 왔다. 증천부(2000:197-199)에 의하면 1960~80년대의 교재는 외국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국 내국인 교육용에

가까웠으며,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박병선(2019:115-117)은 대만의 한국어 교재 개발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첫째, 한국 초·중학교 교재를 교수자가 직접 필사하여 사용하는 시기. 둘째, 활판 인쇄 교재를 사용하는 시기. 셋째, 복사기를 활용하여 기존 교재를 편집·활용하는 시기. 넷째, 1980년대 후반 이후 컴퓨터를 기반으로 자체 교재를 제작하는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대만에서 한국어 교재 개발은 기술적 도구의 진화와 함께 점차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2. 대만의 한국어 교재 연구 동향과 과제

대만 내 한국어 교재 연구는 전반적으로 연구량이 부족하며, 그 범위 또한 제한적이다. 증천부(2000:321-322)가 서술한 바에 따르면, 대만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는 한국에서 개발되었으며, 이를 사용하는 대만인 교사들은 한국 문화 내용을 학습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교수자를 위한 교재 사용 안내서가 부족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박병선(2019:125-127)은 기존 교재가 중국어 번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현지 학습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지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기존 선행 연구들은 대만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의 한계를 조망하고 있으나, 대만 학습자의 실제 요구를 다룬 실증적 분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만 현지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유형이 학습자의 언어적·문화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만 시중에 유통되는 교재가 학습자의 실제 요구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재 유형을 분석하고, 설문 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교재가 미출판 상태이거나 양적으로 부족한 영역이 존재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만 현지 학습자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3. 요구분석(Needs Analysis)의 개념과 교육적 활용

요구분석이란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Rossett(1987:14-15)은 요구분석을 특정 시점에 국한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Burton

& Merrill(1991:25-26)은 특정 활동이 수행되는 이유, 목적, 달성 가능 결과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분석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요구분석은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실질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목표 및 자료를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재 개발에서 요구분석은 현지 학습자의 수준, 목표, 선호 교수법 등을 반영한 교재 설계의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대만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통해 교재의 적합성을 진단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자료 수집 및 연구 대상

3.1.1. 교재 선정 기준

대만 내 한국어 교재를 출판한 경험이 있는 20개 출판사를 선정하고, 해당 출판사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327권을 수집하였다. 출판사 선정 기준은 한국어 교육 관련 전문성, 도서 유통 규모, 한국어 교재 출판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교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사용되는 정규 교재뿐만 아니라, 학습서, 워크북, TOPIK 대비서, 문법서 등을 포함한 총 327권이며, 한국어 사전(한·중사전, 중·한사전 등)은 제외하였다. 이들 교재는 저자 이력, 저자 유형, 난이도, 교재 유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1.2. 설문조사 대상

전공 과정과 교양 한국어 과정은 교육 목표, 학습 내용, 요구되는 언어 숙달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공 과정이 학문적 전문성과 고급 언어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반면, 교양 한국어 과목은 기초 의사소통 능력, 실용적 언어 활용, 문화 이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한, 교양 한국어 과목은 대만 전체 4년제 대학의 약 77.8%에서 개설되고 있어, 한국어 교육 수요가 주로 교양 외국어 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游媚鑣, 2019: 328). 이러한 교육 환경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한국어 전공이 아닌 교양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대만 북부 지역 6개 대학에서 교양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512부 중 주요 문항에 결측치가 있는 4부를 제외한 50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교양 수업 반별 최대 수용 인원은 학교별 교육 여건에 따라 50명에서 70명까지 상이하며, 본 조사는 자율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어 대학별 표본 분포에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규모와 운영 환경의 교양 수업 학습자를 포함함으로써, 교양 한국어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

악하는 데 일정 수준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

구분	분류	빈도 (명)	비율 (%)	구분	분류	빈도 (명)	비율 (%)
성별 (n=508)	남자	66	13.0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여부 (n=508)	응시	50	9.8
	여자	442	87.0		미응시	458	90.2
학년 (n=508)	1학년	126	24.8	한국어능력시험 급수 (n=50)	1 급	8	16.0
	2학년	102	20.1		2 급	24	48.0
	3학년	138	27.2		3 급	3	6.0
	4학년	142	27.9		4 급	8	16.0
한국어 학습 기간 (n=508)	1년 미만	328	64.5		5 급	0	0.0
	1~3년	135	26.6		6 급	2	4.0
	3~5년	32	6.4		무급	3	6.0
	5년 이상	13	2.5		성적 미발표	2	4.0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 비율은 87.0%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대만 한국어 교양 수업에서 실제 여학생 비중이 높은 교육 현황과 부합한다.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기간은 1년 미만이 64.5%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9.8%만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응시자 중 73.1%는 향후 응시 의향을 보였다. 대만에서 한국어 교양 수업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 학년이 수강할 수 있으며, 전공자와 달리 졸업 요건에 한국어능력시험 급수 취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학습자의 다수가 실제 응시 경험을 갖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학습자의 ‘학년’과 ‘한국어 학습 기간’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학습자는 고등학교에서 이미 한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어 대학교 저학년임에도 학습 기간이 길 수 있는 반면, 고학년임에도 대학 입학 이후 처음 한국어를 접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실제로 전체 272개 고등학교 중 약 45.6%에 해당하는 124개교에서 201개 반의 한국어 수업이 운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윤도, 2023:227).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의 실제 학습 경험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학년’과 ‘한국어 학습 기간’을 각각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다.

3.1.3. 심층 인터뷰 대상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연구자의 수업을 1년 이상, 최소 3 과목 이상 수강하여 라포(rapport)가 형성된 학습자들로, 설문조사

참여자 중 한국어 학습 기간이 2년 이상인 학습자를 선정하였다. 학년, 전공, 학습 목적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총 15명을 선별하였으며, 면담은 교내에서 대면 방식으로 개별 및 그룹으로 약 1시간씩 진행되었다. 모든 면담은 소통의 편의를 위하여 중국어로 진행하였으며, 응답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전사하였다.

표 2: 심층 인터뷰 대상자

학습자	성별	전공	학년	학습 기간	TOPIK급수
A	여	공학계열	3학년	2년 이상 ~ 3년 미만	2급
B	남	사회학과	3학년	3년 이상 ~ 4년 미만	2급
C	여	경제학과	3학년	3년 이상 ~ 4년 미만	3급
D	남	정치학과	3학년	2년 이상 ~ 3년 미만	2급
E	여	중어중문과	3학년	3년 이상 ~ 4년 미만	3급
F	여	일본어학과	3학년	3년 이상 ~ 4년 미만	없음
G	여	일본어학과	3학년	2년 이상 ~ 3년 미만	2급
H	여	일본어학과	3학년	2년 이상 ~ 3년 미만	없음
I	여	일본어학과	4학년	2년 이상 ~ 3년 미만	없음
J	여	사회복지학과	4학년	2년 이상 ~ 3년 미만	2급
K	여	영어영문학과	4학년	2년 이상 ~ 3년 미만	없음
L	여	영어영문학과	4학년	2년 이상 ~ 3년 미만	없음
M	여	사회복지학과	4학년	2년 이상 ~ 3년 미만	2급
N	여	영어영문학과	4학년	3년 이상 ~ 4년 미만	없음
O	여	영어영문학과	4학년	4년 이상	3급

3.2. 조사 도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교재 분석(공급)과 요구 조사(수요: 설문·인터뷰) 결과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두 자료를 ‘언어 기능, 문법 난점, 문화·관광, 학습 매체’의 네 가지 공통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이후 동일 범주 내에서 유형별 비중과 주요 구성 특성, 그리고 반영의 한계를 기준으로 교차 비교하여 공급-수요 간 불일치 지점을 도출하였다.

3.2.1. 교재 유형 분류 및 분석 방법

교재 유형은 고경민(2014:278-279)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어휘, 발음, 문법, 회화, 듣기, 독해, 쓰기, 토픽(TOPIK), 종합, 문화, 관광 등 총 11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들을 상위 개념인 언어 지식형, 언어 기능형, 기능 통합형, 기타의 네 가지 대분류로 구분하고 전체 327권의 교재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저자 국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이력 보유 여부, 저

자 유형(개인·공동 기관), 그리고 교재 유형을 중심으로 교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교재의 외형적 분류에 그치지 않기 위해, 교재 내용 구성의 질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교재를 대상으로 (1) 언어 활동 구성(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제시 비중 및 통합 방식), (2) 과제 유형(반복·번역 중심 연습, 정보 격차, 역할극, 문제 해결 과제 등), (3) 문화·관광 콘텐츠 반영 방식(주제 범위, 제시 형태, 언어 학습과의 결합 정도), (4) 학습 매체 연계(QR 코드·영상·음원 등 확장 자료 제공 여부) 항목을 코딩하였다. 코딩 결과는 유형별(언어 지식/언어 기능/기능 통합/기타)로 집계하여 비교하였고, 그 결과를 설문·인터뷰에서 도출된 동일 범주의 학습자 요구와 대응시켜 공급-수요 간 불일치 지점을 도출하였다.

3.2.2. 설문지 문항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박현선(2008)과 노미연(2021)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대만인 학습자 특성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으며, 기본 정보(5문항), 학습 목적(4문항), 교재 방향(5문항)의 세 영역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문지는 중국어로 번역한 뒤 대만사범대학교 중국어 교사 2인의 검토를 거쳐 제공하였으며,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7.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항별 응답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각 언어 영역별로 응답자 수와 비율을 산출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연구 문제를 분석하였다.

- ① 한국어 학습 목적은 무엇인가?
- ②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영역은 무엇인가?
- ③ 한국어 학습 시 어려운 언어영역은 무엇인가?
- ④ 한국어 학습에서 흥미로운 주제는 무엇인가?
- ⑤ 효율적인 한국어 학습 도구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3.2.3. 인터뷰 문항 및 분석 방법

심층 인터뷰는 설문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한국어 교재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과 구체적 요구를 보다 심도 있게 탐색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2025년 5월에 교내에서 실시되었다. 총 6차례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각 참여자는 1회 약 1시간 동안 개별 또는 그룹 형식으로 참여하였다. 인터뷰 종료 후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방과 후 비공식 대화를 통해 보완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국어로 번역한 인터뷰 자료는 전사 후 주제 중심의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반복되는 발화를 범주화하여 해석하였다. 주요 문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재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 요소

- ② 교재 내 문법 설명 및 연습 구성에서 어려움
- ③ 교재에 수록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식과 개선 요구
- ④ 학습 매체(영상, 모바일 자료, QR 등) 활용 경험과 요구
- ⑤ 교재 개선을 위한 학습자의 제안 및 요구

4. 연구 결과

4.1. 교재 분석 결과

4.1.1. 저자 및 출판 특성 분석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전체 교재 저자의 59.0%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관련 전공 이력이나 교사 자격 등 일정한 전문 배경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41.0%는 해당 분야의 공식적인 전문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저자의 학력이나 전공 여부만으로 교재의 질적 수준이나 교육적 적합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교재의 완성도는 개인의 교수 경험, 집필 역량, 편집 및 감수 과정, 그리고 검증 체계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자 전문 이력을 교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아닌, 교재 개발 주체의 구성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분석 지표로 해석한다. 저자 국적별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인 저자는 중국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교재를 집필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만 국적 저자는 한국 유학 경험이나 한국어 학습 경험을 토대로 교재 개발에 참여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었다. 한편, 저자 유형 분석 결과, 공동·기관 저작 교재가 전체의 5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개인 저작 교재의 경우, 양국 언어 능력을 활용하여 실용 목적의 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일부 교재에서는 교수·학습 단계 간 연계성, 학습 목표 제시의 명확성, 활동 구성의 체계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편차가 확인되었다[표 3].

표 3: 출판된 한국어 교재 저자 국적 및 집필 형태

구분		수량(권)	백분율(%)
개인	한국인	101	30.9
	대만인	47	14.4
	화교	9	2.7
	기타	1	0.3
공동 및 기관		169	51.7
합계		327	100.0

대만에서 출판된 공동·기관 저작 교재는 한국 대학 부설 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교재의 중국어 번역본이 다수를 차지하며, 체계적인

구성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재는 한국의 어학당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대만 대학의 교양 한국어 수업에서는 분량이 과도하게 제시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초기 번역본에서는 지역 맥락에 대한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예문이나 문화 설명에서 ‘대만’이 아닌 ‘중국’을 중심으로 한 표기가 그대로 유지된 경우도 관찰되었다. 이는 번역자 사용, 어휘 체계, 사회·문화적 정체성 인식 등 대만 학습자의 언어·문화적 특성이 교재 구성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최근 5년간 발간된 개정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지역 표기의 수정과 문화 예시의 현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는 번역 교재의 교육적 적합성이 단순한 번역 정확도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인 현지화 검토와 편집·검증 체계의 축적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1.2. 난이도 및 교재 유형 분포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한 327권의 교재 분포를 보면, 초급 교재가 208권(63.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입문 단계 교재가 50권(15.3%), 중급 교재가 49권(15.0%), 고급 교재는 20권(6.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대만의 한국어 학습 환경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구조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대만 대학의 교양 한국어 수강생은 초급 학습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학습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상위 단계 학습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고급 교재에 대한 시장 수요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고급 교재의 양적 부족 자체를 문제로 단정하기보다는, 초급 단계 이후 학습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는 교재 구조와 학습 경로 설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양 교육 맥락에서는 장기 숙련도 향상보다는 기능적 의사소통 능력 형성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단계 간 학습 목표의 연속성과 내용 심화 체계가 교재 설계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경민(2014)의 교재 유형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대만에서 출판된 교재 327권을 분석하였다. 11개 세부 유형(어휘, 발음, 문법, 회화, 듣기, 독해, 쓰기, 토픽, 종합, 문화, 관광)은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 지식, 언어 기능, 기능 통합, 기타의 네 가지 상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언어 지식형 교재는 어휘·발음·문법 등 개별 언어 지식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재를 의미하며, 언어 기능형 교재는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 특정 언어 기능의 숙달을 목표로 하는 교재를 말한다. 기능 통합형 교재는 이러한 언어 기능을 하나의 주제나 과제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해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 결과,

기능 통합형 교재가 4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언어 지식형 교재는 33.9%, 언어 기능형은 15.0%, 기타는 5.5%로 나타났다.

표 4: 한국어 교재 유형

언어 지식	언어 기능	기능 통합	기타	합계
어휘47(14.4%)	회화35(10.7%)	종합102(31.2%)	문화1(0.3%)	327(100%)
발음41(12.5%)	듣기1(0.3%)	토픽471(14.4%)	관광17(5.2%)	
문법23(7.0%)	독해8(2.5%)			
	쓰기5(1.5%)			

4.1.3. 교재 내용 구성의 질적 분석

본 연구는 저자 배경, 난이도, 교재 유형과 같은 외형적 분류를 넘어, 교재의 내용 구성과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언어 활동 구성, 과제 유형, 문화 콘텐츠 반영 방식을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여 교재 분석 결과를 재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능 통합형 교재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말하기·듣기 중심의 상호작용 활동은 제한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 교재는 문형 제시와 예문 중심 구성에 머물러, 학습자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화 전략을 연습할 수 있는 과제 설계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학습자들이 말하기(40.1%)와 듣기(35.9%)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 결과와 대비되며, 교재 구성과 학습자 요구 간의 구조적 괴리를 보여준다.

과제 유형 측면에서도 반복·번역 중심 활동이 다수를 차지하여 문제 해결 중심의 의사소통 과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심층 인터뷰에서도 확인되었으며, 학습자들은 교재 예문과 실제 회화 맥락 간의 연계 부족과 문법 설명-활용 연습 간의 단절을 반복적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문화 콘텐츠는 전체 교재 중 비중이 매우 낮고(0.3%), 음식·예절 등 특정 주제에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40.8%)와 관광(34.3%)에 높은 흥미를 보인 설문 및 인터뷰 결과와 상당한 간극을 보인다.

¹ 본 연구에서는 토픽(TOPIK) 교재를 기능 통합 범주에 포함하였다. 이는 해당 교재가 듣기·읽기·쓰기 등의 언어 기능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분류 기준에 따라, 목적성(시험 대비)을 중시하면 ‘기타(특수 목적)’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용 구성 방식을 우선하여 기능 통합으로 분류하였다.

4.2. 설문조사 결과 분석

4.2.1. 한국어 학습 목적

실제 학습자는 단일 목적보다 복합적인 동기를 지니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설문 문항을 이분형 복수응답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분석 단계에서는 학습 목적을 ‘취미, 관광, 교환학생, 취업’의 네 범주로 유형화하여 집단 간 경향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네 범주는 교양 한국어 학습자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 목적 유형을 중심으로 설정한 것이며, ‘기타’ 응답은 특정 범주로 환원하기 어려운 개별 목적을 포함하는 잔여 범주로 처리하였다(예: 친지 방문, 유학 사전답사 등). 이는 개별 학습자의 동기를 단일한 범주로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양 한국어 학습자의 주요 수요 유형을 구조화하고 교재 개발 및 교육 내용 설계에 활용 가능한 분석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본 설문조사 결과,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의 주요 학습 목적은 ‘취미’(54.9%)와 ‘관광’(24.2%)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교환학생’(9.5%), ‘취업’(6.3%), ‘기타’(5.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방문 시 예상되는 신분을 묻는 문항에서는 ‘관광객’이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학생’(19.6%), ‘비즈니스 방문’(2.8%), ‘친지 방문’(0.8%), ‘기타’(0.3%)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학습 목적의 복잡성과 맥락적 특성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보완적으로 해석하였다.

표 5: 한국어 학습 목적

구분		N	퍼센트	중복 응답 비율
한국어 학습 목적 ^a	취미	404	54.9	79.5
	교환학생	70	9.5	13.8
	취업	46	6.3	9.1
	관광	178	24.2	35.0
	기타	38	5.2	7.5
합계		736	100.0%	144.9%

^a. 값 1을 기준으로 집계한 이분형 복수응답 결과이다.

표 6: 한국 방문 시 신분

구분		N	퍼센트	중복 응답 비율
한국 방문 시 신분 ^a	관광객	461	76.5	90.7
	유학생	118	19.6	23.2
	비즈니스	17	2.8	3.3
	친지 방문	5	0.8	1.0
	기타	2	0.3	0.4

합계	603	100.0%	118.7%
----	-----	--------	--------

a. 값 1을 기준으로 집계한 이분형 복수응답 결과이다.

4.2.2. 한국어 학습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

한국어 학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 기술은 말하기(40.1%), 듣기(35.9%), 읽기(17.6%), 쓰기(6.4%) 순이며, 읽기와 쓰기 영역의 중요도 인식은 낮은 편이다[표7]. 학습 목적과 기간에 따라 비율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말하기와 듣기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공통된 경향을 보였다[표8].

표 7: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영역

구분	N	퍼센트	중복 응답 비율
중요한 언어영역 ^a	듣기	423	35.9
	말하기	473	40.1
	읽기	207	17.6
	쓰기	76	6.4
합계	1179	100.0%	232.1%

a. 값 1을 기준으로 집계한 이분형 복수응답 결과이다.

표 8: 학습 목적 및 기간에 따른 언어영역 중요도 요약

구분	언어영역				전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 목적	35.2%	39.8%	18.0%	7.0%	100.0%
학습 기간	35.9%	40.1%	17.6%	6.4%	100.0%

4.2.3. 한국어 학습 시 어려운 영역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어렵게 인식하는 언어 영역은 문법(22.7%)과 쓰기(22.5%)로 나타났으며, 세부 순위는 문법(22.7%) > 쓰기(22.5%) > 말하기(16.7%) > 발음(15.7%) > 읽기(13.0%) > 듣기(9.6%) 순으로 분석되었다.

학습 목적별로 살펴보면, 취미 및 관광 목적의 학습자는 문법을, 교환학생 및 취업 목적의 학습자는 쓰기를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습 목적 문항은 복수응답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므로, [표 9]의 결과는 교양 한국어 학습자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학습 목적 유형에 따른 경향을 기술적으로 비교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또한, 학습 기간과 관계없이 문법과 쓰기는 전반적으로 높은 난이도로 인식되는 영역임이 확인되었다.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대만인 학습자가 문법을 어렵게 인식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한국어와 중

국어 간의 언어 유형 차이에서 설명되어 왔다.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를 통해 문법적 의미를 표지하는 교착어인 반면, 중국어는 어순 중심의 고립어라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를 보이며,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조사·어미 사용 오류로 이어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경환, 2008; 나은영, 2006).

그러나 이러한 언어계통 차이에 대한 일반적 설명만으로는 학습자가 실제로 어떠한 문법 요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문법’을 단일 범주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응답이 실제로 어떤 문법 요소에서 비롯되는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하위 문법 항목을 추출·범주화하였다. 즉, 설문에서 확인된 ‘문법의 어려움(22.7%)’은 인터뷰 분석을 통해 조사, 어미, 어순, 시제·상 등 구체적인 문법 요소로 세분화되어 해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양적 결과가 실제 학습 경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도록 분석을 심층화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조사 사용, 어미 활용, 어순 구성, 시제·상 표현과 같은 문법 요소에서 반복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문법 난점이 단순한 언어 유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문장 구성과 의미 표현 과정에서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부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구체적 인터뷰 분석 결과는 4.3절 참조).

표 9: 학습 목적과 어렵게 생각하는 언어영역

분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발음	전체
취미 (K-POP, 드라마 등)	100	167	133	230	235	173	1038
	9.6%	16.1%	12.8%	22.2%	22.6%	16.7%	100.0%
교환학생	9	27	20	46	44	23	169
	5.3%	16.0%	11.8%	27.2%	26.0%	13.6%	100.0%
취업	8	24	13	30	25	13	113
	7.1%	21.2%	11.5%	26.5%	22.1%	11.5%	100.0%
관광	48	82	70	107	110	71	488
	9.8%	16.8%	14.3%	21.9%	22.5%	14.5%	100.0%
기타	18	19	12	17	20	20	106
	17.0%	17.9%	11.3%	16.0%	18.9%	18.9%	100.0%
전체	183	319	248	430	434	300	1914
	9.6%	16.7%	13.0%	22.5%	22.7%	15.7%	100.0%

표 10: 학습 기간과 어렵게 생각하는 언어영역

분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발음	전체
1년 미만	117	157	136	159	176	163	908
	12.9%	17.3%	15.0%	17.5%	19.4%	18.0%	100.0%
1~3년	23	50	34	90	89	47	333
	6.9%	15.0%	10.2%	27.0%	26.7%	14.1%	100.0%
3~5년	3	10	4	22	22	7	68
	4.4%	14.7%	5.9%	32.4%	32.4%	10.3%	100.0%
5년 이상	3	9	4	18	20	6	60
	5.0%	15.0%	6.7%	30.0%	33.3%	10.0%	100.0%
전체	144	222	175	280	291	219	1331
	10.8%	16.7%	13.1%	21.0%	21.9%	16.5%	100.0%

4.2.4. 한국어 학습 시 흥미 있는 주제

분석 결과, 흥미 있는 주제는 학습 목적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한국 문화가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표11]. 또한, 학습 기간이 짧은 경우, 한국 관광(35.9%)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학습 기간이 길 경우 직장 생활과 경제에 관심이 증가했다[표12].

표 11: 학습 목적과 흥미로운 주제

분류	한국문화	한국경제	한국관광	한국 대학 생활	한국 직장 생활	전체
취미 (K-POP, 드라마 등)	312	22	254	129	40	757
	41.2%	2.9%	33.6%	17.0%	5.3%	100.0%
교환학생	58	8	42	41	9	158
	36.7%	5.1%	26.6%	25.9%	5.7%	100.0%
취업	35	7	35	26	17	120
	29.2%	5.8%	29.2%	21.7%	14.2%	100.0%
관광	145	22	143	73	30	413
	35.1%	5.3%	34.6%	17.7%	7.3%	100.0%
기타	23	3	22	6	3	57
	40.4%	5.3%	38.6%	10.5%	5.3%	100.0%
전체	573	62	496	275	99	1505
	38.1%	4.1%	33.0%	18.3%	6.6%	100.0%

표 12: 학습 기간과 흥미로운 주제

분류	한국문화	한국경제	한국관광	한국 대학 생활	한국 직장 생활	전체
1년 미만	242	17	204	83	22	568
	42.6%	3.0%	35.9%	14.6%	3.9%	100.0%
1~3년	100	11	86	51	21	269
	37.2%	4.1%	32.0%	19.0%	7.8%	100.0%
3~5년	26	2	19	12	5	64
	40.6%	3.1%	29.7%	18.8%	7.8%	100.0%
5년 이상	11	1	9	4	2	27
	40.7%	3.7%	33.3%	14.8%	7.4%	100.0%
전체	379	31	318	150	50	928
	40.8%	3.3%	34.3%	16.2%	5.4%	100.0%

4.2.5. 한국어 학습 시 효율적인 학습 도구

취미 목적 학습자는 한국 드라마(34.8%)와 음악(23.4%)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교환학생(24.5%)과 취업 목적 학습자(22.9%)는 한국어 교재를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인식하였다. 관광 목적 학습자 또한 드라마(33.0%)와 유튜브(22.6%)를 주요 도구로 활용하였다 [표13].

한편, 학습 기간에 따라 효율적인 학습 도구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1년 미만 학습자는 한국 드라마(38.1%), 한국 음악(21.0%), 유튜브(22.2%) 등을 선호하여 자연스러운 노출 기반 학습을 중심으로 한국어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학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어 교재’를 선호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다[표 14].

표 13: 학습 목적과 효율적인 학습 도구

분류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유튜브	CD	한국어 교재	전체
취미 (K-POP, 드 라마 등)	277	186	180	18	134	795
	34.8%	23.4%	22.6%	2.3%	16.9%	100.0%
교환학생	47	30	27	4	35	143
	32.9%	21.0%	18.9%	2.8%	24.5%	100.0%
취업	35	16	25	5	24	105
	33.3%	15.2%	23.8%	4.8%	22.9%	100.0%
관광	128	88	90	11	71	388
	33.0%	22.7%	23.2%	2.8%	18.3%	100.0%
기타	17	11	17	2	20	67

분류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유튜브	CD	한국어 교재	전체
	25.4%	16.4%	25.4%	3.0%	29.9%	100.0%
전체	504	331	339	40	284	1498
	33.6%	22.1%	22.6%	2.7%	19.0%	100.0%

표 14: 학습 기간과 효율적인 학습 도구

분류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유튜브	CD	한국어 교재	전체
1년 미만	225	124	131	15	95	590
	38.1%	21.0%	22.2%	2.5%	16.1%	100.0%
1~3년	86	65	63	4	59	277
	31.1%	23.5%	22.7%	1.4%	21.3%	100.0%
3~5년	20	13	14	2	12	61
	32.7%	21.3%	23.0%	3.3%	19.7%	100.0%
5년 이상	7	3	7	1	4	22
	31.8%	13.6%	31.8%	4.5%	18.2%	100.0%
전체	338	205	215	22	170	950
	35.6%	21.6%	22.6%	2.3%	17.9%	100.0%

4.3. 심층 인터뷰 결과

4.3.1. 교재 전반 평가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15명의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에 사용한 교재 권수는 최소 3권 이상, 최대 7권이었으며, 전반적으로 교재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특히 문법 설명의 체계성과 명료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였고(12회 언급), 실생활 상황과 직접 연결되는 회화 예시가 부족하다는 점 또한 주요 한계로 제시하였다. 일부 학습자는 발음 설명 및 예문 속 발화가 실제 구어체와 상이하여 말하기 활동 시 혼란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재 내 예시와 수업에서 수행되는 회화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4.3.2. 문법 학습의 어려움

문법과 관련하여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문법 항목은 조사 사용(8회), 어미 활용(11회), 어순(6회), 시제·상 표현(9회)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사 영역에서는 주격·목적격·부사격 조사의 기능 구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문장 구성 단계에서 혼란이 누적되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어미 영역에서는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의 의미 차이, 화용적 기능 및 활용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자연스러운 문장 산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의 기본 어순(SOV)이 중국어(SVO)와 상이하다는 점이 문장 배열 과정에서 전이 오류를 유발하였으며, 시제·상 표현 역시 동사 활용 변화와 시간 부사의 결합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질적 결과는 설문조사에서 문법 및 쓰기 영역이 높은 난이도로 인식된 결과와 정합적으로 연결되며(4.2.3절 참조), 인터뷰 참여자 15명 중 12명이 문법 관련 어려움을 언급한 점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확인된다. 이는 문법 지식의 이해 부족이 문장 구성과 쓰기 수행에서 요구되는 형태 선택과 배열 부담을 증가시켜, 수행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쓰기 영역이 문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난이도로 보고된 점을 고려하면(4.2.3절 참조), 조사·어미 선택 및 어순 배열에 대한 부담은 쓰기 수행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실제로 일부 학습자는 조사·어미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표현을 단순화하거나 문장 완성을 지연하는 경향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쓰기에서의 산출 지연 및 회피로 연결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법적 어려움은 규칙 이해 차원을 넘어 문장 구성 및 쓰기 산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응답자 전원은 교재의 문법 설명, 예문, 연습 문제 간의 구성 불일치와 중국어 번역의 일관성 부족이 문법 이해를 저해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문법 학습에서의 어려움이 학습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재 내 설명 체계와 번역의 구조적 한계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4.3.3. 문화 콘텐츠 및 매체 요구

문화 콘텐츠 구성과 관련하여 다수의 응답자는 음식이나 예절 등 특정 주제가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10회 언급). 학습자들은 사회 관습, 대중문화, 최신 유행어 등 보다 현실적이고 동시대적인 주제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문화 내용을 단순한 정보 제시가 아닌 어휘·회화 학습과 결합된 형태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현행 교재의 문화 내용이 시대 변화와 괴리가 있어 학습 흥미를 저해한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학습자는 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실례나 규범 위반에 대한 두려움이 문화 학습 동기로 작용한다고 언급하였다.

먼저, 결과, 학습자들은 듣기와 말하기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대면 의사소통에 부담을 느껴 기기를 활용한 연습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QR코드 기반 발음·회화 영상 등 모바일 자료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CD는 재생 기기 미보유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간결한 문법 비교표 제공과 교재 분량·무게 조정을 통해 학습 편의성을 높일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전자책은 휴대성과 검색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기기 오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인쇄본은 필기와 시각적 편안함 측면에서 선호되었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쇄본과 전자책을 병행 제공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심층 면담 결과

요인	내용	응답 빈도 (복수 응답)
교재 전반 평가	·전반적으로 만족도 낮음, 중립적 입장을 표명함 ·문법 설명의 체계성 및 명확성 부족 ·실생활 상황과 연결된 회화 예시가 제한적임	12회
문화 콘텐츠 구성	·음식, 예절 등 문화 주제 반복 ·명절, 관습, 대중문화 등 다채로운 주제 요구 ·수록된 문화 내용이 시대 변화와 부합하지 않음	10회
학습자 제안 및 요구	·문법 설명, 예문, 연습 문제의 일관된 구성 요구 ·복습용 자료 및 QR코드 자료 요청 ·분량 조정 및 무게 부담 완화 요구 ·인쇄본과 전자책을 병행 제공하는 방식 권장	15회

4.4. 교재 공급 구조와 학습자 요구의 종합 비교

본 연구는 교재 분석 결과(공급)와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수요)를 동일한 분석 범주로 대응시켜 종합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는 말하기(40.1%)와 듣기(35.9%)를 핵심 언어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교재에서는 기능 통합형 교재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호작용 중심 과제는 제한적으로 구현되어 있었다. 또한 학습자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영역은 문법(22.7%)과 쓰기(22.5%)로 나타났으며, 조사·어미·어순·시제·상과 같은 하위 문법 요소에서 학습 난점이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교재에서는 문법 설명과 실제 산출 활동 간의 연계 구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문법 지식이 수행 능력으로 전이되는 경로가 제한적이었다. 한편 학습자는 한국 문화와 관광에 높은 흥미를 보였으나, 교재 공급 구조에서는 문화 및 관광 교재의 비중이 낮고 주제 또한 일부 영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디지털 매체 활용에 대한 요구 역시 확인되었으나, 교재 차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한 설계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 결과는 교재 공급 구조가 학습자의 주요 요구를 부분적으로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교양 한국어

교재 개발에서는 언어 기능 중심 과제의 실질적 구현, 문법 난점의 단계적 해소, 문화 콘텐츠의 확장, 디지털 매체 연계 설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6: 교재 공급 구조와 학습자 요구 비교

분석범주	학습자 요구 (설문·인터뷰)	교재 공급 현황 (교재 분석)	불일치 및 시사점
언어기능	말하기(40.1%), 듣기(35.9%) 중요 인식	기능 통합형 비중 높으나 실제 상호작용 과제 제한적	기능 통합 표방과 실제 과제 설계 간 괴리
문법난점	조사·어미·어순· 시제·상에서 지속 적 어려움	문법 설명 중심, 산출 연계 과제 부족	문법지식이 수행 으로 연결되지 못함
문화·관광	문화(40.8%), 관광(34.3%) 흥미 높음	문화교재(0.3%), 관광교재(5.2%), 주제 편중	학습자 흥미 대비 공급 부족
학습 매체	드라마·유튜브· QR 자료 선호	디지털 확장 자료 연계 제한적	교재-디지털 연계 구조 미흡

4.5. 소결

분석 결과, 교재와 학습자 요구 간에는 언어 기능 구현, 문법 제시 방식, 문화 콘텐츠 구성, 디지털 매체 연계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문법 제시 방식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은 문법을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인식이 곧 문법을 의사소통 활동과 분리하여 제시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형태 초점 접근(Focus on Form)에 따르면 문법 형태는 의미 중심 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습자의 주목을 받을 때 형태 인식과 실제 사용 간의 연결이 강화될 수 있다(Long, 1991:45; Ellis, 2001:10-11). 또한, 인지부하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문법을 규칙 중심으로 제시한 뒤 과제 단계에서 별도로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학습자가 규칙을 검색하고 재구성해야 하는 과정을 증가시켜 외재적 인지부하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Sweller, 1988:261-263). 더 나아가 출력 가설에 따르면 학습자는 언어 산출 과정에서 자신의 언어적 결핍을 자각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를 통해 형태 지식을 재구조화할 수 있다(Swain, 1995:125-12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법 설명은 규칙 중심의 분리 제시에 머무르기보다 최소 단위의 형태 설명을 바탕으로 말하기·쓰기 과제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습자들은 한국 문화와 관광에 높은 흥미를 보였으나 교

재에서는 관련 콘텐츠의 비중이 제한적이고 주제 또한 일부 영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인터뷰에서도 학습자들은 대중문화, 사회생활, 대학 생활 등 보다 다양한 문화 주제를 요구하며 문화 내용을 어휘와 회화 학습과 연결된 형태로 제시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향후 교재 설계에서는 문화 요소를 어휘, 담화, 과제 수준에서 언어 기능 학습과 결합하는 문화 통합형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문화 통합형 교재는 문화 정보를 부가적으로 제시하는 교재가 아니라 언어 기능 학습과 문화 이해가 동일한 과제 구조 안에서 결합되도록 설계된 교재를 의미하며, 문화 요소는 전통 문화, 일상생활 관습, 대중문화, 사회 제도, 관광 자원 등 학습자의 실제 사용 맥락과 연결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학습자들은 드라마, 음악,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를 주요 학습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교재에서는 이러한 매체와의 연계 설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대만 교양 한국어 교재 개발에서 언어 기능 중심 과제 설계, 문법 난점의 단계적 제시, 문화 콘텐츠 확장, 디지털 매체 연계 설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만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327권의 유형 분석과 교양 한국어 학습자 5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교재 구성 체계와 학습자 요구 간의 대응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만 교양 한국어 교육 맥락에서 교재가 학습자의 실제 학습 목적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결에서 제시한 언어 기능, 문법, 문화, 디지털 매체 연계의 설계 원리를 교양 한국어 수업의 특성에 따라 구체화하여 교재 개발 방향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언어 기능 중심형’ 교재는 기초 의사소통 능력 형성을 목표로 말하기·듣기 활동의 비중을 확대하고, 조사·어미·어순·시제·상과 같은 문법 요소를 독립적으로 제시하기보다 말하기·쓰기 과제 안에서 단계적으로 통합 제시함으로써 문법 지식이 실제 수행으로 전이 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문화 통합형’ 교재는 학습자가 높은 흥미를 보인 한국 문화 및 관광 요소를 어휘·회화 학습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언어 사용과 문화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제 중심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용 목적 중심형’ 교재는 관광, 단기 체류, 교환학생 준비 등 구체적인 활용 상황을 전제로 한 기능 중심 과제를 강화하고, QR 코드 기반 음성·영상 자료 등 디지털 매체와의 연계를 통해 수업 외 반복 학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대만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구성 양상과 교양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재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요구 분석과 교재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제안된 교재 설계 방향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고에서 제시한 교재 설계 방향을 실제 교양 한국어 수업에 적용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Burton, John K., and Paul F. Merrill. "Needs Assessment: Goals, Needs and Priorities."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and Applications*, edited by Leslie J. Briggs, Kent L. Gustafson, and Murray H. Tillman,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1991.
- Long, Michael H. "Focus on Form: A Design Feature in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Foreign Language Research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edited by Kees de Bot, Ralph B. Ginsberg, and Claire Kramersch, John Benjamins, 1991.
- Rossett, Allison. *Training Needs Assessment*. Educational Technology, 1987.
- Swain, Merrill. "Three Functions of Output in Second Language Learning." *Principles and Practice in Applied Linguistics: Studies in Honor of H. G. Widdowson*, edited by Guy Cook and Barbara Seidlhofer,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2) 학술지

- 游娟環：〈台灣有關韓國多元化課程教學設計之研析〉·《生命教育與通識教育論壇暨學術研討會》·亞東技術學院·2019年5月·頁 323-337。
- Ellis, Rod. "Introduction: Investigating Form-Focused Instruction." *Language Learning*, vol. 51, 2001, pp. 1-46.
- Sweller, John. "Cognitive Load during Problem Solving: Effects on Learning." *Cognitive Science*, vol. 12, no. 2, 1988, pp. 257-285.
- 고경민. 「한국어 교재의 유형별 분류에 대한 고찰—통합교재의 명칭과 의미를 중심으로—」·『우리말교육현장연구』 15 · 서울 · 우리말교육현장학회 · 2014 。
- 김경원.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오류 양상에 관한 고찰」·『새국어교육』 72 · 전주 · 새국어교육학회 · 2008 。
- 나은영.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분석: 중급학습자에서 나타나는 문법 오류를 중심으로」·『새국어교육』 72 · 전주 · 새국어교육학회 · 2006 。
- 노미연. 「학습자 요구 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통한 한국어 중급 교재 개발 연구: 국민 한국어 4를 중심으로」·『동악어문학』83 · 서울 · 동악어문학회 · 2021 。
- 박병선. 「대만의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과 과제」·『아시아문화연구』 50 · 경기 · 아시아문화학회 · 2019 。
- 박병선. 「대만의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과 과제」·『제28차 국제학술

- 대회 발표집』· 인천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2018 。
- 박현선 。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요구분석과 회화교수방안에 대한 제언」· 『한중인문학연구』 24 · 서울 · 한중인문학회 · 2008 。
- 왕청동 。
-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전망」· 『한국어교육』 26(4) · 인천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2015 。
- 정윤도 。
- 「대만 한국어교육을 통해 본 향후 해외 한국어교육의 과제와 전망」· 『韓國學報』 38 · 臺北 ·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 2023 。
- 증천부 。
-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재의 현황과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국어교육연구』 7 · 서울 · 국어교육연구학회 · 2000 。
- 진경지 。
- 「온라인 속담강의 개발연구: 대만의 대학 한국어문학과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3(2) · 서울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2012 。

(3) 인터넷 자료

語言訓練測驗中心(LTTC) · <https://www.topik.com.tw/> 。

한국관광공사 사이트 · <https://knto.or.kr/> 。

Address for correspondence

Yun-Jeong Yang
Language Teaching Center,
Soochow University
No.70, Linxi Road,
Shilin District,
Taipei City 11102, Taiwan

yunzhen1230@gm.scu.edu.tw

Submitted date: August 15, 2025

Accepted date: March 9, 2026

